

#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성해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20
----------	------

발의연월일: 2024년 2월 일

발 의 자: 성해련, 김윤환, 이군수, 강상태,  
조우현, 고병용, 박경희, 김선임  
(이상 8명)

## □ 제안이유

- 매년 성남시에서는 7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지원센터인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및 진로 지원 등 일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상당수는 위기·고립 상황이나 대인관계 곤란, 위해 환경 노출 등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일괄적 지원보다 다양한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하지만 2024년부터 성남시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예산지원을 중단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인별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촘촘한 지원을 주도해 온 관내 5개 학교 밖 대안 배움터가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또 하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기존 5개 무료 대안 배움터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해 촉구함

## □ 주요내용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밑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성남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예산 지원 정책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

##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소년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년청소년과)
- 붙임 :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1부.

#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2013년 제정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보다도 앞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 조례이며, 본 조례를 통해 약 1,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 대안 배움터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과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성남시에서는 2024년부터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십여 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을 촘촘하게 지원하며 지켜 온 교육 생태계를 붕괴 위기에 놓이게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위기·고립 상황이나 대인관계 곤란, 위해 환경 노출 등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일괄적 지원보다 다양한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아이들이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 다수는 유학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생계유지가 불확실하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학업에 관한 지원을 넘어 돌봄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대안 배움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라 믿고 찾아온 무료 대안 배움터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랜 노력 끝에 조례가 제정 되고 어렵게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순간에 지원 중단이라는 통보로 끝난 현실이 비통할 따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해 온 이들 배움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법률의 목적 달성과도 부합하지 않는 모순적인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다.

성남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원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꿈드림 센터는 일회성 지원시설이지 교육과 돌봄의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위기 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밀착된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기초지원이라는 일차적인 공적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무료 대안 배움터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예외 없이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실현되는 선순환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료 대안 배움터 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양한 위기 환경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성장단계와 환경에 맞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공적 지원기관인 꿈드림 이외에도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무료 대안 배움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나,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민간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 성남시는 2024년도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예산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24. 2. .

**성 남 시 의 회**